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주민의견 수렴 방식과 관련 여타사항을 보이는 가운데 11일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등 일행이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간담(사진 왼쪽)한 데 이어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도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 2공항 도민의견 수렴 점점 찾기 '난항'

국토부, 어제 제주서 간담  
 도의회 "의견 수렴 주체를  
 제주도에 단정짓지 않아야"  
 도, "이달 31일까지 제2공항  
 상생방안 의견수렴 추진"

국토교통부가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조율에 나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점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는 국토부와 간담회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과 별도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양 기관의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의견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을 비

롯한 국토부 관계자 4명은 11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 지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도 실장은 "최근 공개 토론회도 마쳤고,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제주 제2공항) 추진할 것인지 지사님과 상의하고자 방문했다"면서 "지사님과 의장님,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주민 대표와도 만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남은 것은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정부 입장에서는 도민분들이 원하시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2공항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찬·반을 포함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면서 "대신 여러가지 입장이 갈리고, 전문적인 사항, 여론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얽혀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지어져야 할 것 같

다"고 말했다.  
 국토부 일행은 원 지사와 비공개 간담회 이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장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인 만큼 도민의견 수렴 주체를 제주도에 단정짓지 않고 국토부에서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좌 의장은 "신고리 원전이나 대구 군 공항, 대학 입시 개편 등도 모두 공론조사를 했는데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제주도에 전부 전가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은 국가에서 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군 공항 등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의견 수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신공항 건설의 경우 그런 차원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단산·반을 넘어 구체적인 제주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의견 수

렴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의견 수렴은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도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착수 예정인 '공항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취입기회 확대, 주변지역 발전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 환경수용력 제고방안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SOC, 노후SOC 사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도 실장은 "향후 실질적인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공공도서관 열람실·공연장 13일부터 확대 개방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공연장을 확대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갖고 13

일부터 도 산하 12개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6개 공공 공연장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도서관 열람실 개방 좌석 수를 제한하고, 전 좌석에 칸막이

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공 공연장의 경우도 시설별 상황을 감안해 좌석간 2m 내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입장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공공 공연장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발열측정, 출입자 명부 작성, 좌석 내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조치를 조정하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기준과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후 제주 특성에 맞게 수정 반영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오는 24일부터 5부제 온라인... 9월7일부터 현장접수

69만9256명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추석(10월 1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석 이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이며,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 및 등록외국인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도민 67만1768명과 등록외국인 2만7488명 등 모두 69만9256명이다. 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도민 대상 지급에 따른 업무 폭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해 세대

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시작일인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은 온라인 5부제 신청만 가능하다. 이후 9월 7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3주차인 9월 11일까지는 읍면동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5부제가 실시되며, 신청 접수 4주차인 9월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계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지원금 신청을 9월 27일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지급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관련 문의는 19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 한라산 구상나무 종 복원 나선다

지속적인 고사 진행됨에 따라  
 12일 어리목 만세동산 일원서  
 자체 양묘한 1000본 시험식재

한라산의 깃대종인 구상나무에 대한 종 복원 사업이 이뤄진다. 올해는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년, 구상나무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번 복원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분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한라산 구상나무의 지속적인 쇠퇴와 고사가 진행됨에 따라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지 내 종 복원 연구를 위한 어리나무 시험식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산분부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어리목등산로 만세동산 일대에서 시험식재에 나선다. 식재하는 묘목은

한라산 구상나무의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자생지에서 수집한 종자를 한라산연구부 양묘시험포지에서 지난 6년간 자체적으로 키운 어리나무 1000본이다.  
 유산분부는 2017년부터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 생장·쇠퇴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벌이고 있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모든 성숙목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자생지에 미기상 측정장비를 설치해 환경모니터링 체계를 갖췄으며, 또한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 및 쇠퇴원인 규명을 위해 병·해충 조사와 고사목 나이테 분석을 통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양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자생지 내 구상나무 종 복원 연구를 위한 어리나무 시험식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KRA 한국마사회

# 2020년 제27회 한라일보 대상경주

2020. 8. 15.(토) 제4경주

※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무관중 경주로 시행됩니다.(고객입장 불가)